



湖南新聞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지역

7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곡성장미축제 내일 팽파르

억만송이 꽃에 관객 취한다

오는 26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서 개최



수억민송이 장미향이 넘치는 제9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된다.

세계장미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40,000㎡의 장미공원에 유럽 최신품 종 100여종의 장미가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드넓은 장미의 품안으로 맞이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장미축제는 수억송이 장미의 향연이 사랑의 큐피드 화살처럼 방문객을 매혹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에서 동시에 대발적으로 추진되는 장미축제와 차별화를 위해 '골든 로즈'를 컨셉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릴 장미축제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기차마을 중앙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막식

은 메인무대를 기준의 장미무대에서 중앙무대로 옮기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무대 구성과 새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축제기간 중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중앙무대에서 팝페라, 색소폰, 방송댄스, 카레일쇼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장 외에도 축제가 열리는 기차마을 일대는 하나의 커다란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관객과 함께 하는 길거리 뮤지컬, 컬러풀 길거리 퍼포먼스를 선보임으로서 무대와 관객석 구분을 없애고 축제장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공연장이 된다.

축제 이튿날 18일 오후 4시부터는 축제장과 음식가게를 화려한 색으로 물들인 '2019 로즈란'이 개최

된다. 곡성문화센터에서 축제장 까지 약 4km를 다채로운 컬러 파우더를 뿌리며 신나는 음악 공연과 함께 걸고 달리는 로즈란은 5월의 밤낮을 빛낼 곡성장미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라비앙로즈 제즈뮤직페스티벌'은 서울 유명 텁텐스 제즈 그룹 'Golden age band'를 비롯한 젊은 감성의 제즈 그룹들이 대거 출연한다. 주말 저녁 관광객들에게 장미공원과 낭만적인 축제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제즈공연을 통해 오랜 여운으로 남게 해줄 것이다.

25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국내 정상급 뮤지컬 퀸 쇼정원 콘서트는 축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준다. 콘서트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컬러홀리(Colorholic) 뮤지컬 페스티벌에서는 제연, DJ 춤자 등 유명 가수 및 디제이 공연과 화려한 색감의 꽃기루로 축제장의 토요일 밤을 뜨거운 열기로 수놓는다. 관람객들은 화려한 꽃잎들이 흩날리는 공연장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잠시 현실을 잊고 가벼운 일탈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6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국비아콘서트에는 알리, 박상민 등 대형 가수와 팝페라 공연을 선보이며 끝나가는 축제의 아쉬움을 달랜다.

곡성=김광수 기자

“먹고 놀고 쉬고! 담양 ‘소풍마켓’으로 놀러오세요”

25일 추월산 옆 소광장서 첫 개장

담양군에서 친환경 먹거리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이 함께하는 풀리 마켓이 열린다.

담양군과 담양군풀리공동체지원센터 담빛여행사업단은 오는 25일 추월산 옆 소광장에서 담빛소풍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풍마켓은 단순 마켓이 아닌 놀거리가 있는 소풍 콘셉트의 차별화된 마켓으로 군에서 육성된 풀뿌리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담양의 동부 청년, 성인들이 함께

하는 건강한 시민 참여형 마켓이다.

행사장은 로컬푸드 농산물 및 청년 상인들의 공예품, 새로운 먹거리가 있는 판매존, 추월산 전디발을 배경으로 피크닉 둘지터 등을 대여해 여유로이 쉴 수 있는 '소풍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체험존' 세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상설마켓 재능판매마켓, 푸드존, 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소풍마켓은 생태 담양 만들기와 쓰레기 없는

마켓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풍마켓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담양시티투어 버스의 담양호 코스와 연계해 차 없이 떠나는 주말여행에도 제격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과 7월에도 운영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빛여행사업단(061-383-8043)과 소풍마켓 인스타그램(@dambit_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

영암군, 쌀 생산비 절감 드론활용 파종 연시회 개최



기계화, 스마트화가 진행되며 활용도가 높아진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파종 시연이 이루어졌다.

드론은 활용할 경우 파종뿐만 아니라 비료나 풍으의 살포가 가능하며, 10a(300평)에 10.44시간 소요되며 노동력을 5.22시간으로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

드론은 활용한 파종방법은 파종 5~7일 전 경운·정지작업을 한 뒤 5cm 이상 물을 높이 대고 제초제를 처리하고 5~7일간 논물을 유지한 뒤 10a당 소독하여 씨를 틴 씨 종자 3~4kg을 드론을 활용해 파종한

다.

파종 후 5~10일간 논물을 빼고 입모 후 5cm이상 물을 담아 중기제 조제를 처리한 다음에는 이양제비와 같이 재배된기가 이뤄진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시름을 덜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드론활용 파종, 시비, 방제 등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군, 여름철 '감염병 방역' 비상근무

화순군은 15일 여름철 수인성 식품 폐기 감염병과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에 대비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면서 위생 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어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화순군 보건소는 감염병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은 오후 8시까

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근무자는 24시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약국·학교 등 146개소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4월부터 A형간염, 흥역, 수두, 수족구병 등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기온 상승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군은 물끓여 먹기, 음식 악취 먹기,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 씻기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2인 이상의 식중독 환자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며 “여름철 감염병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관내 질병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미관 개선

여수시가 응천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와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먼저 오는 9월까지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악취방지시설은 침사지, 분뇨동, 건조동, 탈수기동에 데개와 탈취기를 설치해 악취를 제거하는 원리로 사

업이 완료되면 80% 이상 악취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는 미관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생활배수조 상단에 110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업비 4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설비는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시설·설비의 사업비는 지정 기탁금과 국비·지방비로 총당한다.

앞서 지난해 3~4월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사인 (주)한화건설과 토지 분양사인 여수블루토파이(유)는 악취저감을 위해 지정기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한화건설은 지난해 12월 27일 15억 원을 납부했고 여수블루토파이(유)는 오는 6월 30일까지 15억 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박차'



장흥군이 단백질 함량이 많아 사료가치가 높은 이탈리안 라이그리스의 종자 생산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과 7월에도 운영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빛여행사업단(061-383-8043)과 소풍마켓 인스타그램(@dambit_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남축산연구소와 2009년부터 11년

여 토지 활용 IRG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그린 펑3호'는 국조생종으로 장흥군에서 많이 퍼져나온 중생종 품종에 비해 추위에 강하다.

또한, 2주 정도 조기수확이 가능하여 이탈리안 라이그리스 수확기에 우기가 지속되어 저품질 조사료가 생산되는 것을 해결 할 수 있다.

후작물에 대한 파종·관리도 가능해 작물 재배에 유리하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이탈리안 라이그리스 종자는 대부분 수입산을 이용한다.

수입량은 연간 약 5,500t(18만ha 이상 재배 가능량)이다.

생산국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위험성이 있고, 또한 병해증 감염 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자급률 확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자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은 대단위 재배 단지화가 효율적이다.

장흥군의 경우 삼신간척지가 최적지로 지목받고 있지만 염농도가 높아 작물 재배가 쉽지만은 않다.

군은 전남축산연구소와 함께 삼신간척지에서 안정적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리스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흥=송호빈 기자